내가 한다는 생각 없어야

홀연히 깨칠 수 있는 지름길

제사는 조상 은덕 알게 하고 아래 자손 가르치기 위해 지내야

☞ 25면에서 계속

야만이,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지금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도를 이룰 수 있는지 진실하게 생각해보시고, 내 근본을 지팡이 삼아 길 아닌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참다운 의정을 내려면

문 스님의 가르침을 삶의 지표로 삼아 생활하고 있는 청년 법우입니다. 이제는 마음공부에 대해서 조금 확고해지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생이 다하기 전에 확철대오 하고픈 마음은 간절하나 그 마음마저 근본 자리에 돌려놓고 스님께서 설법하신 법어집과 테이프, 그리고 매주 나오는 현대불교신문을 스님께서 직접 설법하시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믿고 지극한 마음으로 공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부해 나가다가 의정을 내어야 한다는 스님의 법문을 보고 어떻게 하면 참다운 의정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하여 질문을 올립니다. 하찮은 질문이다 여기지 마시고 가르침 주신다면 소중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답 의정이라는 것은 못 믿고 모르기 때문에 이게 뭘까 하고 들어가는데, 보이는 이 육신은 가아(假我)이고 진짜 자기는 깊은 내면 속에 들어 있다는 거를 알면 아는 대로 넘어서는 겁니다. 의정을 떠나서 넘어서는 거죠. 진짜 의정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진짜 자기와 가아 자기가 같이 만나서 공부할 때 그때 비로소 진짜 의정이 나오는 거죠. 무의 세계 광대무변한 거를 다 배우려니까,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의정을 내겠다고 해서 내는 거는 무모하기가 짝이 없고 내가 줄을 잡아타고서, 즉 말하자면 소 고삐를 잡고 피리를 불 때 그 피리소리가 얼마만치 가는지 되돌아오는지 그것도 알게 되는 거죠.

예전에 내가 공부할 때 먹지도 못해서 걸음을 제대로 걷지도 못하고 간신히 엉금엉금 물 흐르는 데 기어가서 물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게 배우는 일이죠. 나의 줄을 잡았으니까 거기서 가르치는 거죠. 그 물을 허덕거리면서 세 모금을 마시고 났는데 문뜩 생각이 나기를 '그 세 모금은 그대로 있느냐!' 이 소리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가르쳐 나가는데 그거는 뭐 대의정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거는 시공을 초월한 도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세 모금을 먹었어도 한 모금을 세 모금으로 대처할 수도 있느니라, 아홉 모금이 세 모금이 될 수도 있고 한 모금이 될 수도 있고 한 모금이 한 모금도 아닐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의정이 있는 거지, 이거는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정이 있는 거죠. 순간 그런 것뿐이 아니에요. 이제 나투는 방법과 어떻게 해서 마음이 하나뿐이 아니라 수만 개의 분자로 화해가지고 입자로 화해서 보살로서의 응신이 될 수 있을까 할 때, 나툴 때 그렇게 의정이 날 수가 없더라구요.

그런데 지금은 의정을 낼 게 하나도 없이 무조건이죠. 무조건! 무조건 대문을 탁 치고, 있다면 대답하라고 하는 거죠. 무조건 맡기고 말입니다.

갓 태어난 어린애들이 아장아장 걸음을 걸을 때에 무조건 걷기 때문에 낭떠러지가 있다고 해도 모르고 그냥 팔딱팔딱 뛰어가죠. 근데 반드시 애들 앞에는 어른이 지켜보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자성부처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거와 같다고 할 수 있죠. 어린아이들이 어디에 떨어지지나 않을까 하고 부모들이 지켜보고 있는데 낭떠러지가 생기면 무조건 딱 붙잡는 거예요. 붙잡아서 낭떠러지가 없는 데로 데려다 놓는 거죠. 이거를 진짜로 믿어야 해요. 그러니까 어디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말고 무조건, 아버지는 대문 없는 대문 안에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꼭 찾아야 되겠다 하는 격이나 마찬가지죠. 그렇게 우리가 정진하면서 배우는 겁니다.

화엄경에도 그렇게 쓰여 있어요. 부처님의 곳처는 어디에다 두었는가. 또 사람들이 배우는 과정을 어디에다가 이름을 뒀는가, 명칭은 어떻게 정하는가. 그러나 그것을 이렇게 한 건지 저렇게 한 건지 봐도 모를 거예요. 그냥 글자로만 풀이를 해놨으니까 그 속에 숨어 있는 뜻을 모를 겁니다. 그렇게 심오하게 말씀하셨는데도 말입니다. 글을 떠나서 써 놓을 수 없기 때문에 글을 떠나지 않고 그 뜻을 표현하려고 하니까 어떤 때는 몇 자가 더 적어진 곳이 있어요.

「한마음요전」이나 「허공을 걷는 길」도 한 달에 한 번씩 얘기해 놓은 것을 편집한 건데,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는 비디오도 있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는 현대불교 신문도 있으니까, 근데 죽은 글이 있는가 하면 산 글이 있어요. 살아있는 글에서는 샘물이 나오지만 죽은 글에서는 샘물이 나오지를 않죠. 아무리 읽어도 물리가 터지지 않습니다. 이론으로만 편집이 되어있기 때문이죠. 무한량으로 에너지가 거기 들어있다는 사실을 알고 배우는 모든 사람들이 증득하기를 바래요. 이건 내 개별적인 마음이 아니고 개별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건 포괄된 여래의 법이므로 나는 입만 빌렸을 뿐이에요.

그러니 자꾸 넓게 펼쳐 나가도록 하세요. 아무리 광대한 법이라고 해도 적은 그릇에다 자꾸 퍼부어 봤자 흐르기만 할 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우선적으로 그릇을 크게 만들면서 바다를 집어삼킬 수 있게끔 열심히 해나가세요.

제사 꼭 지내야 하는지?

문 조상님의 제사는 꼭 지내야 하는 것인가요? 저의 큰 형님은 교회를 가니까 제사를 소홀히 하고, 둘째 형님네 부부는 사네 마네 하고 있고, 누나들은 세 째인 저한테 제사를 모셨으면 하고 이야기를 하지만 저도 집사람한테 이야기하기가 면목이 서지 않아서요. 제사를 지내지 않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니 괜찮던데 꼭 지내야만 하는 것인가요?

답 우리 신도님들은 집에서 제사를 지낼 때 우주 떡하고 과일 세 가지, 향과 초를 켜고 흰 꽃과 큰그릇에 물 한 그릇 떠놓고 지내라고 일러줍니다.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 방편으로 말입니다.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되니까요.

그런데 왜 꼭 해야만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건 아래 자손들이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하는 교훈도 되고, 복합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도, 그 영혼이 하나는 태어나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돌아다니기 때문에 제사를 지낼 때 삼혼묘묘귀하처(三魂杳杳歸何處)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조상이 모른다고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죠. '이 괘씸한 놈' 그러고는 뒤돌아서서 아마 휘적휘적 갈 거예요.



그림 · 최주현

절을 한다 안 한다 이걸 떠나서 사람이 자기가 고개를 숙일 줄 모르면 자기가 자기를 승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기가 자기를 고개 숙이게 할 줄 알아야만 된단 얘기죠. 벼이삭도 익으면 고개가 숙여지듯이 사람이 권리가 주어지면 고개를 숙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래 자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도 잊지 않고 꼭 챙겨야 하는 겁니다. 쓸데없는 게 아니에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느 어머니가 슬하에 외아들을 두었는데 그 외아들이 그만 죽었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타파가 되도록 아들의 제사를 지내주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다른 집에 가서 태어났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지극하게 하시니까 좋은 데로 태어나서 사는데, 꼭 어느 날짜만 되면은 꿈에 자기가 어느 집을 찾아가서 제사 밥을 먹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깐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년에 한 번씩은 꼭 어느 집으로 찾아가서 제사 밥을 먹고 오는데, 그 집에는 하얗게 머리가 센 노파가 앉아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그러다 하루는 어느 스님이 오셨기에 그 일에 대해서 물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분은 바로 너를 낳아주신 전생에서의 어머니다. 그러니까 꿈에 갔던 길을 찾아가서 그 집에 가봐라.' 하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찾아서, 몇 해를 두고 항상 다녔으니까 그 길을 잘 알죠, 꿈에 다녔으니까. 그래서 찾아가니까 정말 그런 오두막집이 있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 보니까 제사 상을 차려놓고 정말 그 노파가 앉아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날 현생의 자기 집에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는 그 전생의 어머니를 모셔다가 현생의 어머니와 함께 두 어머니를 섬겼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없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났다 하더라도, 태어나서 산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살아야 되겠죠, 사람답게. 그러니까 제사를 잘 지내드려야만 된다. 그래야만 이 그 밑으로도 잘 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그 어머니가 외아들이라고 얼마나 정성스럽게 했으면 좋은 집에 가서 태어났겠어요. 또 자기가 과거의 어머니로서 그 자식의 현재 어머니와 같이 살았겠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부모가 주신 이 모습을 아주 은혜롭게 항상 생각하시고 사세요.

그래서 신도님들이 오시면 제사 잘 지내느냐는 말도 하고 천도재는 지냈느냐, 얽히고 설킨 거를 다 편안하게 활연하시게 했느냐 얘기하는 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신도님네는 한 쪽은 기독교를 믿고 한 쪽은 불교를 믿는데 불교 믿는 식구는 한 사람이고 기독교 믿는 식구는 여러 사람이 되니까 우겨서 제사를 추도식으로 지낸대요. 근데 하나도 마음에 담기는 게 없기 때문에 조상들이 어디다가 몸을 의지하고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한 거나 안 한 거나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신도님네는 다른 종교를 믿는 형제들이 추도식을 했다는데 가만히 보니까 부모의 영혼들은 가지를 않았어요. 가지 않고 여기 다니는 막내 아드님한테 따라오셨더라고요. 거길 안 가고, 참 이거 혼란스러운 일이지만 이게 사실이라는 거를 아셔야 합니다. 그런 걸 보고 다 끝내고서 돌아서서 나갈 때 다 무너지는 거 같아요. 내 몸이 말이에요. 그러니 안 보인다고 무시하지 마시고, 다른 형제들이 못 지내는 형편이면 지낼 수 있는 자식이 소박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지내 드리는 게 좋을 듯 합니다.

현대불교 1천원 법보시운동에 동참합시다

군부대 · 교도소 · 복지시설에 자비의 법등을 밝힙시다

'현대불교'는 우리의 소중한 이웃인 군부대, 경찰서, 교도소, 병원, 복지시설 등에 '현대불교 보내기 운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법보시는 부처님 법을 다른 사람들에게 삼는 것으로 선근을 자라게 하여 개인에게도 무량한 공덕이 됨은 물론 우리 사회를 한층 밝고 따뜻하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육취윤회경〉에서 "보시의 공덕은 이루 헤아릴 수 없다. 경전의 가르침을 보시하면 큰 지혜를 얻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 동참방법
매월 1,000원 이상 자동이체 또는 수시 온라인 입금(문의시 상세히 안내)
또한 보시하는 분자님이 직접 법보시 대상자나 단체를 정하셔도 됩니다.

■ 참여방법
예금주 성명, 은행명(우체국/수협은 제외), 계좌번호, 예금주 주민번호, 이체희망일자, 연락처를 전화로 알려주시면 자동이체로 후원금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 신청 및 문의
고객부 (02)737-0090(直) (02)737-8881(代)

현대불교신문사

당 뇨
씨트리 키토산

- 당뇨, 고혈압, 만성피로 등
각종 성인병 개선에 효과 '놀라워' -

그것은 씨트리 키토산에는 사람의 체질을 약알칼리성 체질로 바꾸어 주는 힘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체질을 바꾸기 전에는 당뇨병에서 헤어나지 못합니다.
인슐린 양이 부족하여 높게 상승된 혈당치가 씨트리 키토산의 당대사를 개선시켜주는 강력한 작용으로 현저하게 떨어지며 물질 영양대사 기능을 활성화시켜 당뇨병으로 인한 합병증을 개선 예방할 뿐만 아니라 당뇨로 인해 결핍된 영양소를 체내에 균형있게 공급하여 무너진 영양바란스를 조정해 줍니다.

▶ 씨트리 키토산의 당뇨에 대한 효과
20일~30일만 드셔도 효과가 나타나며 1~2개월만 드시면 병원약(신약)을 먹지 않아도 됩니다.



씨트리 키토산 5g×90포(450g)
1개월분 130,000원



결과에 자신있습니다.
자연식 동우회 회장
개업의사(한의사) 방동완

당뇨병 외 기타질환에 대한 씨트리 키토산의 효과
- 위궤양, 비만증, 무좀, 체력증강
- 감기에 걸리지 않는 체질로 개선
- 피로를 없애고 뇌를 맑게 해줌
- 피부를 아름답게 부드럽게 해줌
- 갱년기 장애 등
- 자율신경실조증
- 정력증강, 숙, 담배해독
- 암, 관절염, 고혈압

초원케미칼라이프 Co.
(C.W.) (주)반도제약특수사업부
주문 및 상담 (02) 598-9832
무료 전화 080-598-9832

원리를 아는자 미래를 지배한다

피부와 체형을 보고 정확한 건강, 미용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원리적인 기법을 공개 습득케하여 몸과 마음이, 자연과 사람이 절대 둘이 아니며 하나임을 알려드립니다.
이제 자신의 건강, 미용은 물론 상대와의 조화로운 삶이 시작됩니다.

인성이 좋은 직업전환, 창업자를 찾습니다.
수암 프랜차이즈점 행정구역별 모집 (소규모 창업)

◆ 수암 프랜차이즈 종류 ◆
수암 아카데미 – 음양체형 관리사, 두피관리사 교육기관
수암 갤러리 – 코스메틱(화장품), 관리
수암 SB 갤러리 – 두피건강
수암 관광 갤러리 – 외화획득

수암 선생의 오감만족 기혈순환 마사지 "혈기왕성"
케이블 육아 TV , 10/7~ 11/30 40회분 방영(1회 30분 방영)

방송시간 안내
오전 11시(본방) 오후 4시 25분(재방)
새벽 2시 15분(재방) 오후 10시 25분(재방)

음양피부체형연구회 [주]
연락처 02-582-1069, 3487-1069
http://www.suarm.com

"천년전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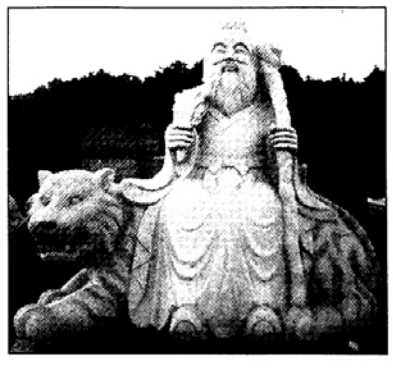


옛 신라인은 수 많은 불교 문화유산을 남겼습니다. 아직도 이 땅 곳곳에 우리 가슴을 따뜻하게 하는 신라인의 불심과 손길을 접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석굴암은 불교신앙을 대표하는 부처님상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동국석재조각예술원은 이러한 신라인의 마음으로 소임을 다합니다. 천년 전 신라인의 마음으로 불사에 동참합니다.

문화재청등록 조각기능보유자







석재조각의 대가
동국석재조각예술원
전화: 031) 531-8736 팩스: 031) 531-5549 휴대폰: 011-284-5101